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전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김세곤

퀴즈를 하나 내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無國家)란 말이 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란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 답은 구국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1593년 7월 16일 이순신은 친구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언급한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때로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라좌수영 여수를 떠나 한산도로 군진을 옮기는 시점이다. 이순신은 8월 중순에 삼도수군통제사가 된다.

임진왜란은 동북아시아를 뒤흔들여 놓은 사건이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에 걸친 전쟁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전쟁터가 된 조선은 초토화되었다.

그러면 이순신은 어떤 의미로 약무호남 시무국가란 말을 썼을까. 그것은 국가존망의 위기에 그나마 조선이 이 정도라도 지탱할 수 있던 것은 호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사실 호남이 조선의 버팀목이라는 생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뿐만 아니라 김성일, 유성룡도 같은 생각이었다. 1592년 6월 김성일이 올린 장계에는 "호남은 지금 근왕(勤王)으로 인하여 도내가 텅 비었으니 만약 또 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더욱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 날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1593년 12월 유성룡도 선조 임금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린다. "전라도를 보전하지 못하면 나라가 능히 지탱될 수 없겠습니까. 그 지경에

이르면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명나라 군대가 있다 해도 명군이 어찌 우리를 구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1593년 7월까지의 임진왜란 상황을 호남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과족지세로 조선을 쳐들어간다. 20일 만에 한양을 빼앗고 2개월 만에 전라도와 평안도 일부를 제외한 조선 전역을 점령한다. 이런 국난을 극복하게 한 것은 이순신 휘하의 전라도 수군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이었다. 이순신은 5.8 옥포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후 7.8에 한산도 해전, 8.29 부산 해전에서 승리하여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한편, 육지에서 의병들의 활약으로 호남은 무사히 지켜진다. 응차·이치 전투, 고경명과 조현의 금산 전투 등으로 왜군은 조선 의병의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

왜군은 진주에서 전라도로 오는 길목도 차단당한다. 조선관군과 의병은 제1차 진주성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이어서 1593년 6월에 왜군은 진주성을 함락시켰지만 전라도를 침략하지 못했다. 2차 진주성 싸움은 김천일, 최경회 등이 이끄는 3천 5백 명 호남 의병이 8만 명의 왜군에 대항하여 10일 동안이나 진주성을 사수한 전투였다. 조선군이 비록 패하기는 하였지만 왜군 또한 상당한 병력 손실과 피로가 겹쳐 전라도 침략을 포기한다.

당초 일본은 호남을 점령하여 군량 조달기지로 삼으려 하였으나 일본의 계획은 무산된다. 반면에 온전하게 된 호남은 양곡 생산지·병참기지, 군 병력 송출 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필자는 요즘 '임진왜란과 호남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틈틈이 주말에 역사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호남 수군의 흔적은 여수와 진도가 대표적이다. 여수에는 진남관, 충민사, 선소, 이충무공 대첩비와 타루비 등이 있다. 진도에는 울돌목, 벽파진이 볼거리이다.

호남 의병의 흔적은 김천일과 고경명, 최경회, 김덕령의 자취에서 찾을 수 있다. 나주 정렬사를 가면 김천일을 만난다. 거기에는 김천일과 양산속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담양 추성관과 광주 포충사에는 고경명의 흔적이 있다. 담양 추성관은 담양 동초등학교 자리이며 광주 포충사에는 고경명, 고종후, 고인후, 유평로, 안영의 신위가 배향되어 있다. 화순 포충사에는 최경회의 신위가 있다. 최경회는 의기 논개의 자아비이기도 하다. 김덕령의 흔적은 무등산 자락 충장사에 있다.

이러한 역사현장을 다니면서 남도가 충의의 고장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남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솟아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주요 칼럼

이영현



성경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호하고 가꿀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자유도 보장되며(창세 1장), 하느님에게 극진한 사랑으로(요한 3, 16) 기억되고 돌보아진다고 한다(시편 8, 5).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가 하느님과 결속관계 안에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도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보장된 자유만큼은 하느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창세 3장)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오로 사도가 유다 기혼종교도인 자들과 맞서 그토록 집요하게 "율법에 앞선 믿음"을 강조한 것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보살피신 인간의 품위와 자유에 대한 공개적인 주장과 확인이었음을 되새겨 볼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갈라 5장).

이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남께서 무능하시 때다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사제인 그가 어떻게 감히 그런 명제를 내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창조주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인간의 존엄한 품위와 고귀한 자유를 강조하여 예찬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회 현실에서 새삼 인간의 존엄한 품위와 고귀한 자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외쳐야만 하고, 고심하며 투쟁해야만 하는 외로운 '의인들'이 있다는 그 자체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여명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다행스럽기만 하다.

자동차 타이어 유통기한 알기쉽게 표기했으면

얼마 전 자동차 타이어는 새 타이어라도 생산된 지 3년 이상 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보도를 보았다. 고속도로 결함 사고 1위는 불량 타이어 때문이라고 하는데 불량 타이어는 사고를 일으키는 흉기가 되어 사람 생명과 직결된다.

문자로 써여 있는 암호처럼 쓰여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왜 유통 타이어 제조일자 표기만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암호처럼 쓰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기고

이기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실정이다. '08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해마다 약 천 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이로 인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적 손실 비용만 7천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광주·전남에서는 총 2천31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10명이 사망하고 4천238명이 부상

세가 결여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각종 규제 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행태는 좀처럼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잘못된 음주운전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음주운전 문화를 반영하여 장래의 음주운전자형성된다는 점으로 내 자녀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음주운전, 개선 아닌 제거되어야 할 행위

하여 65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술로 인한 실수'라고 가볍게 넘기려는 성향이 매우 짙어, 이러한 관대한 의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자동차 운행 공간인 도로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예방공포를 자리 매김함으로써 변화된 사회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도로에서 운전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잘못된 운전행태는 개선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은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생각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명을 하는 그 순간의 의지가 운전대를 잡는 동안 지속되어진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은 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도 최선을 다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교육,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동참 그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시설

준비소홀 여수박람회 국제 망신 당할 건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여수세계박람회는 국비 등 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사업이다. 그럼에도 박람회 주요 전시 시설을 비롯, 교통·숙박대책 등 기반시설, 수익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홍보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여수시와 행안부 등 각 기관의 이견으로 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교통 대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심각한 숙박난을 해소할 대책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게 감사원의 견이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감 보고 일하나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복지부동·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교육감이 6개월째 비어있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육감만을 위해 일하는지 묻고 싶다.

교육이 불편과 차등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교육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이를 기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작태는 뒷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無等鼓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이!~죽은 말 곁에 서있는 아이를 보았소/~/힘찬 비가 내리려 해요~

지성'으로 견인했다. 대중가수인 그가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낱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쾌척했다. 그리고 대중가요에 부재했던 철학을 불어 넣었다.

밥 딜런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